

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M&A 전략 Ⅲ



글 김중태 M&A포럼 (www.maforum.com) 대표

벤처기업의 M&A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 기업에게는 M&A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,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. 지난호에 이어 벤처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M&A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Q&A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.

Q 중소벤처기업이 M&A 추진 애로사항과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

A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각 분야의 선두권(1, 2위 기업)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, 마케팅 등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M&A에 대한 검토를 하지만 적기에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M&A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

보통 자문기관으로는 법률(법무법인), 세무/회계(회계법인), 금융기관(은행, 증권, 창투사 등),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 등), 컨설팅회사(경영컨설팅, M&A컨설팅), M&A중개회사(부티크) 등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의 M&A를 자문하는 것보다 대기업 또는 대형 M&A에 참여하는 것이 수익성에서 보다 안정적이므로 중소벤처기업의 M&A자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.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문기관 또는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M&A진행을 추진하지만 M&A의 특성상 수많은 돌발변수가 발생하거나 협상에 따라 변화무쌍하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낭비만 하게 됩니다. 내부에 M&A전문인력 또는 M&A경험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내 핵심인력에 대한 M&A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.

Q M&A 실무교육 및 전문가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특징은 무엇입니까?

A 대부분 대학에는 M&A관련 전문분야 교육과정이 학과나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벤처분야 특화로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호서대학교경영학과에 M&A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.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는 M&A 및 관련 주제와 분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실무가 중요한 M&A분야에 대하여 이론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
따라서 M&A 전문교육은 사회교육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, 대기업조차도 연수원 등 교육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M&A관련 교육만은 자체연수원에서 교육이 어려워 결국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인재양성을 하게 됩니다. M&A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가, 교육기관은 M&A와 관련이 있는가, 강사진은 실무와 이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, M&A의 특성상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문가 인맥(네트워크)구축에 대한 시스템은 있는가, 교육 이후에 전문가그룹 및 교육참여자와의 커뮤니티 및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기 바랍니다.

언론사 및 대형 교육기관에 개설된 M&A프로그램은 실무와 교육이 병행되고 있으며 사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지난해 송도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수합병(M&A)을 통한 기술이전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. 이 교육은 M&A 전략 수립과 국내 M&A 현황 및 사례 등 3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벤처기업협회에서도 회원사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M&A전략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